정교회주보

제2601호
2026년 11월 1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성벽과 망루, 내부 안뜰을 재현한 안토니아 요새 모형. 바울로는 병영에 갇힌 그날 밤,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

루가 제5주일
성 코즈마와 다미아노스
자선 치료자와 모친 성 테오도티
(제5조 • 조과 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 청빈자들과 기적자들 찬양송 · 8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고린도 전 12,27~13,8 (봉)604
- 복음경 : 루가 16,19~31 …… 125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고린토 전 13,6)

[43회] 주님의 위로

바울로는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앞에 섰다. 그는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 때문에 심문받고 있다고 말하였다.(사도행전 23,6) 부활을 둘러싼 논쟁이 격해지자, 파견 대장은 바울로가 다칠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그를 병영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23,11)

주님의 위로는 고난을 당장 없애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와 함께하시며 증언의 길을 이어 주시겠다는 부르심이었다. 갇힌 몸이었으나 사도의 사명은 묶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증인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 로마로 향할 길이 보이지 않는 밤에도, 주님의 말씀은 그가 걸어갈 길을 비추는 빛이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박인곤 요한 신부

오늘 우리 정교회는 거룩한 자선 치료자인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를 기념합니다. 두 성인은 의술을 통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였지만, 그 대가로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의술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성인의 삶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오 10,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는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느님께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생명과 건강, 지식과 재능,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까지도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과 나눌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사랑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두 성인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병자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병자는 단순히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형제자매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요한I서 3,18)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외로움과 절망,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의술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위로, 작은 도움과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두 성인의 모습입니다.

셋째, 참된 사랑은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두 성인이 자선 치료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자신들의 선행에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이익과 손해로 계산하기 쉬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서도 그에 대한 감사나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되받을 생각을 말고 꾸어주어라.”(루가 6,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엇을 되돌려 받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선행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한 의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영혼까지 위로한 참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두 성인의 축일을 맞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두 성인처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의 중보로,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거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거저 나누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매 듭

우리 삶에는 (우리의 죄나 잘못, 말과 행동 등으로) 너무 단단히 붙들어 매서 다시 풀려 해도 풀 수 없는 매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조해하며 손톱을 물어뜯고, 울부짖고,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만 매듭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이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겸손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그대로 놔두십시오."

"더 이상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당신 삶의 이런 엉키고 꼬인 부분을 하느님께로 가져가, 그분 발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의 손으로는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때가 오면 하느님 은총이 가볍게 닿는 것만으로도 다 끊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흔히 주님은 환경(상황)이라는 칼로 그 매듭들을 단번에 잘라내시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매듭들을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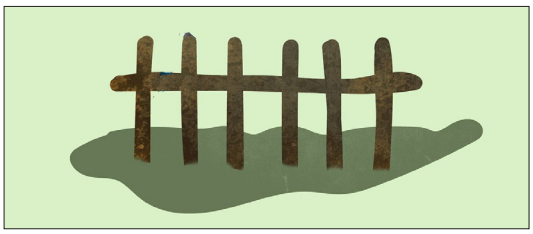


불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의(不義)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당신은 선을 행하지만 악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진실을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착함이나 마음의 평정(平靜)을 잃어버리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시는 정의이시며, 성급히 서두르지 않으시는 판단자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다면 소란을 떨며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충직한 침묵이 천 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비록 타인이 당신과 다른 길을 택하더라도, 당신 자신은 선한 일 위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가혹함에 맞서 거칠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어둠만 더 커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다만 밝게 빛날 따름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아무런 응답이나 위로 없이 당신을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진실은 빛을 발할 것이고, 당신이 선한 것을 배신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면서 당신의 영혼은 평화 속에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 어떤 승리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소 식



국제 심포지엄 개최

우리 대교구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 「니싸의 성 그레고리오스 - 신학자, 철학자, 신비가」 (Saint Gregory of Nyssa - The Theologian, the Philosopher, the Mystic)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11월 2일(월) 오후 2:30-6:00
  (심포지엄 종료 후 식사 제공)
-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65동)

서울 성당 결혼성사

지난 주일(25일) 오후,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Nicholas & Krista Manos 교우의 결혼성사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크리스토퍼 욘커 보제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이들은 결혼성사를 위해 특별히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했으며, 양가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서울을 찾아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분의 결혼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축복으로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서울 성당 장신대 학생들 방문

지난 10월 24일(토)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거행된 성찬예배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최형근 교수와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 착좌 35주년

지난 10월 21일과 22일,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의 착좌 35주년을 맞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축하 행사와 기념 성찬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총대주교님께서는 약 1,700년의 세계 총대주교좌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하시며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총대주교님께 건강과 힘을 주시어 앞으로도 거룩한 영적 사명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총대주교님의 거룩한 축복을 청합니다.

서울 성당 인근 부지 재정비 사업 관련 회의

지난 10월 22일(목), 성 니콜라스 대성당 운영위원회는 지역 재개발 조합 및 공원 설계 관계자들과 회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성당 인근 부지의 재정비 및 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당 사업은 우리 성당의 부지와 재산에도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 성당의 권익이 잘 보호되고, 성당 주변이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춘천 성당 슬라브어권 신자 영적 수련회

지난 주말(10월 24-25일), 로만 대신부와 슬라브어권 신자 15명이 영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로만 대신부와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의 집전으로 대만과가 거행되었으며, 예배 후에는 영적 대화와 고백성사가 이어졌습니다.

주일에는 성찬예배에서 참가자 모두가 성체성혈을 모셨습니다. 이후에는 점심을 함께하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는 성당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